(1) 西紀1962年4月5日 (木曜日) 1960年7月1日登錄·登錄番號C—9 The Dong Kook University Press (1955. 10. 13 第三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187號

東大時報

發行編輯兼印刷人 鄭 斗 石
主幹 金 鎭 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購讀料 貳百圜
一部定價 五拾圜

今週一言

한 사람의 웃트 그것이 萬人의 智慧가 된다。

—〈렷셀〉—

佛敎文化硏究所發足段階

鄭斗石總長은 三十一日 下午 本社記者會見에서 앞으로 學生들의 內的實力涵養과 보다 더 위하여 「外的인 行事나 在學生의 對外活動은 一切 止揚할 方針이라고 言明하고 現在總長이 兼職하고 있는 大學院長에 이날 鄭總長은 梁柱東博士를 推戴하여 四月中 就任키로 內定되었다고 밝혔다。 特히 敎授·學生間 緊密한 紐帶를 通하여 從來講義室敎育에서 生活敎育, 人間敎育에로 決定, 現在 主任敎授를 中心으로 學生들의 內的實力涵養과

沈滯속에 抒情의 잔물결

—上—

李昌培

英美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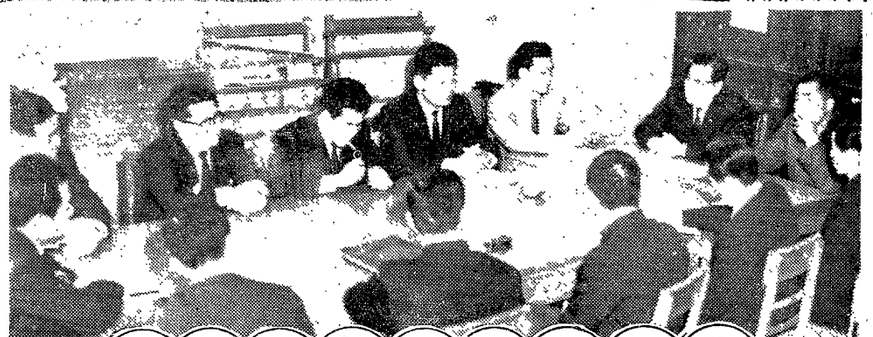
(寫眞·上은딜런·토마스 下는알른·긴스버그)

「理解할수있는詩」

「理解할수없는詩」에서 二次大戰後의 詩人들이 어떻게 그 意義가 다른지를 中에서도 칼·샤피로(Karl Shapiro)·랜달 자렐(Randal Jarrell)·리차드·에버하트(Richard Eberhart)·헨리 트리스(Henry Treece)·테드·휴즈(Ted Hughes)·등 많은 讀者를 가진 詩人들이다.

이렇게 『理解할수없는 詩』에서 『理解할수있는 詩』로 바뀌게 된 二次大戰後의 詩人들의 特徵은 그 數가 많고 그 作品이 다양하고 그 傾向은 한마디로 말하면 「反抗的」이라고 할까, 非妥協的이라고 할까, 하여튼 反抗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때의 英國 詩人들이 英國의 「비트·제네레이션」, 英國의 「테디·보이즈」들이 그 族屬이듯이 美

後輩는 따르는 先輩는 끌어주는



同門과 在學生座談會

同窓會가 學校發展에 미치는 힘은 實로 至大하다。여기 母校를 爲한 後輩를 爲한 同窓會가 사무치게 아쉬웠던 우리에게 새面貌를갖춘 同窓會가 前例없이 後輩들의 育成을 爲해 奬學金을 마련하고 後輩들의 社會進出을 積極 도움도록 화려한 事業計劃을 세워 우리에게 어필 해왔다는것은 多幸한 일이라아닐수없다。여기에 本社는 同窓會理事와在學生 代表들의 座談會를 마련하고 同窓會의 화려한 事業計劃과 同門들에게 바라는 在學生의 소리를 통아 學校發展과 在學生의質的向上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고자한다【編輯子】

▲同門側▲

▼慎京勳(同窓會長) 都象曉(同副會長)
成正基(同 理事) 李基弘(同 理事)
趙源夏(同 理事) 洪淳池(同 理事)
金性壽(同 理事)

▼學生側▲

鄭判奎(佛 四) 元容璇(英 四)
申相斗(法 三) 金聖植(農 三)

▲參席者▼

▲司會=先後輩가 한 자리에 앉아서 흉금을 털어 놓고 在學生들의 質的向上과 母校의 發展을 摸索해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읍니다。今春에 들어서면서부터 同窓會가 活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會長님께서 今年度 事業計劃에 對해서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요。

▲慎京=네、아직 具體的인 事業計劃은 理事會에서 討議中에 있읍니다만。이번 同窓會의 事業計劃은 前例없이 後輩들에게 寄與할 수 있도록 母校發展에 關한 諸般研究論文을 募集하고 그리고 全體學生의 學校 事業別로 분담하고 部員들이 總動員하여 總力을 몰아 同窓會事業基金을 마련하는 事業과 시작하고 있읍니다。

▲都象=그렇읍니다。우리學校엔 地方出身이 많으니까、在學하고 先後輩가 서로 愛護하고 母校에 對한 感謝와 愛着을 갖도록 서로 자극을 주는것도 좋을 것이다。

▲趙源=물론 地方組織도 急히기는 힘들지만、그 보다도 더 急한 育成을 위해 設立하는 것이 우선 確保해야겠어요。그리고 身勢를 지고 있읍니다만、大多數 同門들의 要望도 있고 해서 會館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洪淳=後輩를 위한 奬學金制度든지 會館設立이라든지 이런 기자기한 事業計劃이 척척 세워져가는 中이니까 몇個月以內로 윤곽이 밝혀질것입니다만 期待를 걸어도 괜찮을거예요。

(一同 웃음)

▲司會=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그럼 큰 期待를 걸기로 하겠읍니다。(一同 웃음) 同窓會를 爲한 方向으로 運營하실 計劃이신지요?

▲慎京=네、이 點에 對해서는 在學生 側에서 기탄없이 얘기해 주십시요。

▲鄭判=어떤 學校든지 그學校의 優秀을 가지고 있는데요。敎授陣도 그렇고 同窓會도 事實上없어서는 안타까워하는 都同門이 주먹까지 쥐어보고 싶은 때가 있읍니다。

▲趙源=참 좋은 意見이십니다만 校門을 나서는 在學生 오늘지만 아직 우리들도 在學時에 많이 있었어요。先輩님들의 많은 意思를 모아 敎授陣과 同門들이 서로 協力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어요。

▲都象=그렇읍니다。地方出身이 많으니까、在學하고 先後輩가 서로 愛護하고 母校에 對한 感謝와 愛着을 갖도록 서로 자극을 주는것도 좋을 것이다。

▲趙源=물론 地方組織도 急히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원망도 할때지만 앞으로는 서로 공처해 나가야 겠어요。

▲司會=이 地方同門의 紐帶强化에는 在學生들의 直接的인 助力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都象=그렇읍니다。우리學校엔 地方出身이 많으니까、在學하고 先後輩가 서로 愛護하고 母校에 對한 感謝와 愛着을 갖도록 서로 자극을 주는것도 좋을 것이다。

▲趙源=물론 地方組織도 急히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원망도 할때지만 앞으로는 서로 공처해 나가야 겠어요。

▲司會=그렇읍니다。

商業劇에 挑戰하는 大學劇

演劇을 애기할 때, 빠

우리나라의 演劇을 애기할 때, 우리들은 일버릇처럼 沈滯狀態에 있다고 해왔다. 허나 新春에 접어들면서부터 國立劇場이 새出發을 하게되고 「드라마·센터」가 開館을 보게됨으로써 갑자기 우리劇界는 活氣를뛰우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공교로운게도 우리나라의 劇藝術이 沈滯狀態에 빠져 危機에 있는 것은 原因 客의 貧困도 큰 무엇보다도 演劇人의 數交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演劇人의 努力도 결여되었다. 이것은 演劇人은 꿈도 있었고 幸運만을 바라고 있었으며, 專用劇場이 없었어 新人育成의 길은 事實上 차단된 셈이었다. 이런 狀況 속에서 職業的인 商業劇은 유치한 觀客의 口味에 迎合하고 있었다. 여기에 劇藝術의 沈滯는 必然的이었는지도 모른다. 興行性과 收支面을 내세우고 있는것이 商業劇이라면 大學은 實驗的 創造를 내세우며 興行性과 收支面 보다는 藝術性과 硏究를 全生命으로 하고, 新派의 때를 못벗고 있는 商業劇에 反旗를 들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大學演劇이 劇藝術分野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實로 至大하다. 대학에서 演劇을 애기할 때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해싸워?」를 계속 公演하여 劇藝術의 黎明期에도 하나의 화살을 던졌다. 이같은 活潑한 公演活動은 우리나라 劇藝術이 되살아날 前兆인지도 모른다. 其實 꼭같그래야만 할일이다.

◎◎◎◎◎◎◎◎◎◎

演劇

이해서 本校演劇科에서는 週日을 사이에 두고 「炭坑夫」 「해싸워?」를 계속 公演하여 藝術의 黎明期에도 하나의 화살을 던졌다. 이같은 活潑한 公演活動은 우리나라 劇藝術이 되살아날 前兆인지도 모른다. 其實 꼭같그래야만 할일이다.

不過 一 劇藝術이 專攻한다는 것은 물론 演技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人生을 綜合藝術을 硏究하는데도 큰 意義가 있다. 그래서 觀客의 純粹하지 못한 口味에 不純性을 斷乎히 拒否하고 一切 迎合하는 大學演劇의 舞臺에서는, 商業劇의 舞臺에서는 느낄수 없는 演劇以前의 知性과 敎養이 풍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人生을 綜合藝術을 硏究하는데도 큰 意義가 있다. 그래서 純粹하지 못한 觀客의